한국사회복지학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1, No. 4, 2009. 11, pp. 85-108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임파워먼트 기반의 사회복지실천 연구*

윤 혜 미
(충북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도전에 대해 사회복지실천현장의 효과적인 접근 방법으로 임파워먼트 접근의 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결혼이민여성의 프로필과 지원서비스현황을 파악하고, 둘째, 적응관련 쟁점을 정리하였다. 셋째, 적응쟁점을 개인과 가족 관계, 지역사회 관련 및 사회문화 관련으로 구분하고, 임파워먼트 기반 사회복지실천 접근의 내용을 각각의 쟁점별로 거시·중도·미시적 수준에서 논의하였다.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차별화된 접근은 다문화역량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고, 사회복지사 자신과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의 문화적 편견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지식 및 기술의 개발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끝으로 다문화역량 확보에 대한 사회복지학계와 실천현장의 대응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결혼이민여성, 임파워먼트 사회복지실천, 다문화역량, 다문화주의

1. 서론

현대사회의 사회복지실천은 점점 더 세계화된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 체류외국인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2%를 넘어서면서 한국의 사회복지계도 이러한 조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1990년대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을 시작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국제이주민은 국제결혼을 통해 더욱 가속화되어 이제 한국사회에서 전체 결혼 10건 중 1건, 농림수산업 종사 한국남성의 결혼 10건 중 3건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8-013-B00060).

을 차지할 정도로 가시화 되었다(이선주·양혜경·장미혜·최현미·송유나, 2008). 이 중에서도 특히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결혼이민여성이 주목할 만하게 증가하였다.

이주민은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실천의 중요한 대상이었다. 한국사회에서도 결혼이민여성의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실천현장의 클라이언트 그룹의 프로필에도 변화가 오고 있는데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사회복지실천은 '국제이주'라는 기본적 전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특히 외국여성이 단신으로 한국인 배우자와 가족의 삶 속으로 진입하는 현재 한국사회 다문화가정의 양상은 국제이주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 어려움 외에도 가족구성원 중 특정한 한사람에게 적응의 부담이 편중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또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순간, 한국인 남편도 자녀도 다문화가정의 일원이 되고 적응단계와 가족주기에 따른 다양한 욕구를 함축, 서비스 범위가 이민여성의 초기 정착에 그치지 않음을 예견하게 준다. 당장은 결혼이민여성의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부담과 문화적응의 상호성 결여, 지역사회의 경계감과 교육현장이나 노동시장의 차별 등이 중복되면서 결혼이민여성의 부적응과 가정파탄이라는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권복순·차보현, 2006; 박경동, 2007),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사회복지실천의 범위는 앞으로 보다 확산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더불어, 많은 결혼이민자 가정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족한 지원체계는 이들을 사회적 배제의 또 다른 범주에 묶어둘 가능성이 있다. '단일민족국가'라는 전통적 집단주의 가치를 대체하기 위해 정부가 내걸고 있는 '다문화주의'는 그 실체가 아직 분명하지 않은데,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의존성과 가족문제 등이 누적·노출되면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에서 한국사회의 관용성은 후퇴하고 경계감과 적대감을 불러일으켜 이들의 위치가 더욱 불안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면 과거 10년간 급격한 증가를 보여 온 결혼이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대응은 어떠했으며 사회복지실천현장은 어떤 준비를 해 왔는가? 다문화사회의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급증한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통합정책이나 서비스 전달체계, 사회복지사의 다문화역량이 갖추어지지 못한 것이 그동안의 한국 사회였고 사회복지계의 실상이었다. 이민정책과 사회복지정책 사이의 긴밀한 연계가 부족했음은 물론, 결혼이민여성관련 법도 2008년에서야 마련되었으며 시·군·구에 위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들은 발전과정상에 있기는 하지만 국제이주가 개인과 가족의 삶에 드리우고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적응 쟁점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기에는 역부족이다. 정주운동(settlement movement)의 역사성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사회복지실천현장이 이주민 지원의 중심에 서야 하는 것은 자명한데, 현재의 사회복지계는 결혼이민자가족 이슈에서 서비스 주체가 되기보다 일선 전달자의 위치에 머무르고 있어 정치·경제·사회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나 이들의 정착에 요구되는 거시-중도-미시적인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결여하고 있다.

그동안 결혼이민여성과 그 가족은 사회학, 인류학, 교육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학문 영역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주로 실태와 욕구조사(설동훈·한건수, 2005; 설동훈·이혜경·조성남, 2006; 이선주 외, 2008), 지원서비스의 현황(김이선·장혜경·김혜영·양명희·최은영, 2007), 다문화사회로의 정책전환(설동훈 외, 2006), 다문화화와 문화적 역량(김연희, 2007), 문화적응유형(최혜지, 2009), 다문화 이해(김현미·김영옥·김민정, 2005)와 다문화 교육(오은순·김민정·홍선주, 2004) 등이 주요주제였으며 미시적 시각의 연구는 농촌지역 결혼이민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정은희, 2004), 결

혼이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권복순・차보현. 2006), 갈등과 적응(윤형숙, 2004)이나 대처전략(김희주·은선경, 2007), 폭력피해(윤정숙·임유경, 2004), 정신보건(양옥경・김연수, 2007), 가족갈등(한건수, 2006; 박경동, 2007), 국제결혼한 남성의 생애사(이근무・김진숙, 2009)등이 있으나 실제로 사회복지현장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을 지원할 때 갖추어야 할 통합적 시각이나 개입모델을 다룬 연구논문은 정작 찾아보기 어렵다.

결혼이민자 가정은 보편성, 특수성, 문화적 감수성과 유능성을 요구하는 독특한 전문실천현장이다. 전통적인 의료적 모델이나 욕구중심모델은 일시적 문제해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제이주라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개인적 역량이 측정되지 않은 이들을 무능력한 또는 시혜의 대상자로 조명하게 되어 바람직하지 못하다. 실제로 이들을 지원하는 현장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그간의 시각은 '매매혼', '가정폭력', '외국인 아내의 부적응과 일방적 피해자화' 등 비교적 부정적이고 단편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구미 사회복지계의 이주민 대상 사회복지실천은 권리중심, 강점 관점 등의 접근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들 접근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주자들의 자기결정, 권리, 주체성, 비판적 사고, 유능성의 획득과 같은 개념들로, 이들의 임파워먼트에 의미를 두고 있다(Gutierrez, 1990; Evans, 1992; Ife, 2001). 임파워먼트 접근은 대상자의 개별적인 강점과 약점의 이해는 물론 대상자의 삶을 둘러싼 미시・중도・거시의 세 가지 차원을 포함한 전체 사회체계 내에서의 지위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통한 리더십 배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주라는 상황에 처한 클라이언트에게 적합한 모델이다. 한국사회에서 임파워먼트 실천은 거시적 차원보다는 미시적, 중도적 차원에서 이해되어 심리적 자신감과 집단적 역량강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지적(김인숙・우국희, 2002)이 있는데, 결혼이민여성이 이주 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접점에 있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이들과 일하는 사회복지사에게는 거시적 차원의 시각도 필수적이다. Ife(2000)는 인권은 보편적인 것이며 인간의 욕구는 상대적인 것이라서 사회복지사는 세계화에 대한 시각과 자기 지역사회에 대한 시각을 연결하여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사회복지실천을 임파워먼트 접근으로 보고, 통합적 시각에서 접근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민여성과 가정의 현황 및 현존 지원서비스를 파악한다.

둘째, 결혼이민자 가족의 적응관련 쟁점을 정리한다.

셋째, 결혼이민자 가족이 직면한 도전에 대해 임파워먼트에 기반한 사회복지실천의 거시・중도・미시적 접근 내용을 논의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사회학, 문화인류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아동학 등의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제기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학문별 담론의 수준을 벗어나 결혼이민여성과 가족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 사회복지실천의 통합적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실천현장에서 개입계획을 세울 때, 하나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결혼이민여성 변화추이와 지원 서비스 현황

1) 결혼이민여성의 프로필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노동이주와 결혼이주가 국가 간에 급격히 늘어나면서 인구의 혼성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제 이주는 노동시장의 욕구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 기존 이주민이 가족을 초청하는 가족재결합을 위한 이주, 그리고 정치적 난민의 이주와 같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이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Xu, 2007). 각국은 자국의 경제나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주민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국가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는 이들이 '원하는 이주민'인지 '원치 않는 이주민' 인지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사회의 결혼이민여성은 가족재결합형 이주에 속하며, '원하는 이주민'의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표 1〉은 결혼이민여성의 증가 추이를 보여준다.

〈표 1〉 여성결혼이민자 증가 추이(2005-2008)

단위(명, %)

	2005	2006	2007	2008.5.
여성결혼이민자(B)	66.659	82,828	97,236	103,345
전체결혼이민자(A)	75,011	93,736	110,362	117,392
B/A	88.7	94.8	88.1	88.0

자료: 출입국관리국, 법무부(2007, 2008) 관련자료 재구성 (귀화자 제외)

결혼이민여성의 증가는 확산과정에서 특징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1990년대 초 중국과의 국교를 기점으로 조선족 여성들이 대거 유입된 것이 첫 단계라면, 일본과 필리핀 및 중국의 한족 여성들이 일부는 특정 종교의 신도로, 또 일부는 보다 나은 삶의 조건을 찾아 한국남성과 결혼한 것이 두 번째 단계이다. 2000년 이후, 필리핀·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여성들이 사설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대거 입국하고 있는 것이 세 번째 단계이다(설동훈·한건수, 2005).

첫 단계에 많았던 중국의 조선족 결혼이민여성들은 우선 언어장벽이 없다는 이점이 있어 비교적 빨리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었고, 취업에서도 유리하였다. 이들은 서울이나 인근 수도권 도시지역에 많이 정착하였고 문화적으로도 갈등의 소지가 비교적 적었으나, 일부는 언어장벽이 없는 이점을 이용하여 입국 후 취업·잠적하는 등 결혼의 진정성이 의문시되면서 가정해체의 부작용을 보이기도 하였다.

〈표 2〉 한국인과 결혼한 여성 배우자의 국적별 증가추이

단위:명(%)

여성배우자 국적	2001	2003	2005	2006	2007	국적별합계
중국	7,001	13,373	20,635	14,608	14,526(49.8)	70,143(63.0)
베트남	134	1,403	5,822	10,131	6,611(22.7)	24,101(21.66)
필리핀	510	944	997	1,157	1,531(5.3)	5,143(4.6)
몽골	118	318	561	594	745(2.6)	2,336(2.1)
캄보디아	-	19	157	394	1,804(6.2)	2,374(2.1)
일본	976	1,242	1,255	1,484	1,665(5.7)	6,622(5.9)
전체 외국여성 배우자 수	10,006	19,214	31,180	30,208	29,140	111,319

자료: 통계청, 「2007년 혼인통계결과」. 2008.

일본 및 필리핀 여성들이 많았던 두 번째 단계의 이주여성들의 결혼에는 종교성이 강했다. 특정종교의 신도인 외국인 여성들이 이 종교단체의 국제결혼 관행에 따라 같은 교인인 한국인과 결혼, 입국한 것으로 본국에서의 교육수준이나 생활수준은 다른 집단과 비교할 때 높은 편이었다. 이들은 농촌과 도시 인근에 고루 정착하였으며 외국어 학원 강사 등의 화이트칼라 직업을 얻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김이선・김민정・한건수, 2006), 이들의 한국사회적응에 대해서는 상반된 관찰이 보고되었다. 일본 출신 결혼이민여성들은 종교적 소명에 따라 가정생활에서도 갈등이 적고 남편의 배우자의 언어를 배우려는 자세도 가장 높으며 자녀들도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이해였으나, 최근 일부 연구(설동훈・윤홍식, 2008)에서는 이들이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 비교적 경제가 낙후된 국가에서 온 결혼이민여성들에 비해 경제적・사회적 적응도가 낮았으며 귀화율도 가장 낮은데 반해 결혼이민여성 지원사업에서는 전적으로 배제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사설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대거 입국하여 매매혼적 성향이 엿보인다는 염려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 국적의 여성들이 들어온 시기이다. 이 때 입국한 많은 외국여성들은 본국에서의 교육수준이나 생활수준이 낮고 연령도 상대적으로 낮아 한국인 남편과의 연령차가 10년-20년에 이르기도 한다(김이선 외, 2007). 농촌지역에서 시부모와 함께 또는 가까이 거주하는 비율이 높으며 한국어 능력 및 정보가 부족하여 언어, 문화적응 등에서 어려움이 커서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삶을 살고 있다. 다문화가정 중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가 과반수를 초과한다는(문순영, 2007) 통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룹이다.

2)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서비스 현황

결혼이민자 관련 법률과 서비스 전달체계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여성단체를 포함한 민간단체들이 가정폭력의 희생자가 된 결혼이민여성에게 쉼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나 이들이 수적으로 증가하고 정착에 따른 문제들이 유형화되면서 거의 모든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이주자 관

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었다. 〈표 3〉은 현존 서비스 기관과 대표적인 서비스 내용을 도표화 한 것이다.

〈표 3〉 결혼이민자 관련 정책집행 일선기관과 업무내용과 프로그램

기관	서비스 내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 보건복지가족부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 100개 시군구 센터 운영 중.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위한 종합적 가족지원전달체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 행정안전부-자치단체의 '세계인의 날' 행사지원, 외국이주민 지원체계구축,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 동남아 여성 결혼이민자 부모 초청행사 개회, 외국인 주민 무료진료 등 결혼이민여성 관련 서비스 제공
시 · 도 교육청	· 교육부—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문화교육 실시
지방노동사무소	· 노동부-결혼이민자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통역서비스
고용지원센터 · 여성워크넷	· 노동부-결혼이민자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통역서비스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여성 결혼이민자 취업 교육 및 취업/창업 정보 제공

결혼이민자 가정 대상 서비스의 법적 근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한다. 중앙정부 행정기관으로 보건복지가족부내에 결혼이민여성과(직원 9명)가 있고 전담일선기구로 2009년 현재 전국에 100개소[1]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개설되어 건강가정사나 사회복지사가 일하고 있다. 이외, 결혼이민여성들의 '매매혼'적 성격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관련법을 2008년 시행하였고 베트남과 필리핀에 국제결혼이민관을 파견하여 입국 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했던 서비스 제공기관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수렴되면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민단계를 입국 전 결혼준비기, 입국 초 가족관계 형성기, 자녀양육 및 정착기, 역량강화기의 4단계로 나누어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언어교육, 정보제공, 직업훈련과 취업연계, 보육, 자조집단활동, 상담 서비스가 따로 제공되는 형태는 자칫 서비스의 파편화를 가져올 수 있다. 서비스 제공과 함께 사회복지사의 개입을 통해 개인적 수준부터 사회문화적 수준을 포함, 서비스 과정에서 임파워먼트 노력이 드러나는 일관되고 차별화된 실천적 접근 노력이 필요하다.

1) 서울 · 부산 · 대구 각 4개소, 인천 3개소, 대전 · 광주 · 울산 각 2개소, 경기 10개소, 강원 8개소, 충남북 각 7소, 전북 9개소, 전남, 경북 각 13개소, 경남 11개소, 제주 1개소)

3. 사회복지실천과 결혼이민자 가족의 적응쟁점

1) 결혼이민여성의 문화적응과 사회복지실천현장의 문화적 유능성

이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렵고 고통스런 경험이다. 결혼이민여성들은 자기가 자라난 문화에서 익숙해진 가치와 역할로부터 새로운 문화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대인관계, 언어, 사회적 규범이나 역할기대와 같은 다양한 수준에서의 갈등을 경험한다. 이론가들은 새로운 문화로의 적응과정을 문화적응(acculturation, 문화변용이라고도 함)이라고 부른다(Birman, 1994). 문화적응과정의 연속선상에 통합(integration)과 동화(assimilation)의 개념이 있는데, Berry(2003)에 따르면 통합이란 새로운 문화와 상호작용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의 문화에 가치를 두는 것임에 반해[2], 동화는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본인의 원래 문화를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양쪽 문화 중 어느 한쪽과도 동일시하는 정도가 낮을 경우를 주변화라고 부른다. 〈표 4〉는 문화적응 유형을 도표화한 것이다.

〈표 4〉 문화적응의 2차원 모델

본국문화와의 동일시 정도	새로운 문화와의 동일시 정도	
	고	저
고	통합, 이중문화(biculturalism)	분리(Separation)
저	동화(Assimil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

자료: Berry(1993).

이민여성의 문화적응 유형이 어디에 가까운가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욕구나 적응 쟁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들과의 사회복지실천에서는 문화적응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한국에 정착한 결혼이민여성들의 문화적응유형에 대한 연구(최혜지, 2009)는 드물지만 기존연구 등에서는 공통적인 문화적응 관련 쟁점을 도출해 낼 수 있다. 김이선 외(2006)는 여성결혼이민자 38명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한 연구결과 분석에서 이들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에는 언어의 차이, 일상생활양식의 차이, 가족구조의 차이(양변적 가족체계와 부계가족 체계), 젠더구조의 차이(한국사회의 경직된 성 분리체계)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사실상 한 개인의 삶에 속한 모든 생태환경을 구성하는 핵심적 가치체계에 차이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문화적응이 길고 점진적인 과정임을 보여준다.

2) LaFromboise 등(1993)은 이중문화(bicultural)라고 명명했는데 이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문화가 한 개인에게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새로운 사회의 문화가 원래의 문화를 대체하지는 않는 상태를 말한다.

문화적응의 과정은 정체적이거나 단선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며 유동적인 것이어서 민족에 따라서만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른 매우 개별적인 과정이다. 결혼이민여성의 문화적응은 연령과 본국에서의 경제사회적 지위, 본국문화, 국제결혼 유형과 이유, 체류기간, 한국에서의 경제사회적 지위, 한국가족의 외국출신 배우자의 문화에 대한 이해의 정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달라진다. 사회복지실천의 효과성도 담당사회복지사의 다문화역량(cultural competency)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McPhatter(1997)는 다문화역량은 문화적 인식, 다문화에 대한 지식과 개입기술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즉, 다문화역량이란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인종과 문화적 유산이 실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식과, 타 인종 클라이언트 집단의 문화적 유산, 역사적 배경, 생애경험, 가치관, 가족구조, 도움을 구하는데 대한 태도와 적응전략 등 다른 민족의 특성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실천의 사정·진단·평가 과정에 내재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문화적 편견과 차별적 요소들을 인식하며, 경험에 기반하여 실천하는 능력이 다문화역량이다. 다문화역량을 갖춘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실천이 가치관과 무관하게 객관적이며 중립적이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삶의 경험이 심리적 과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신의 결정이 때로는 자기민족중심적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그 결과, 클라이언트의 문화적 특성을 존중하고 목적 성취를 위해 자신의 감정과 사고 및 행동을 기꺼이 변화시킬 준비를 할 수 있다. Epstein 과 Hundert(2002)는 서비스 전달자의 다문화역량은 전문적 역량의 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였으며, Cross, Barzon, Dennis 와 Issacs(1989)는 다문화역량이 개인실천가의 개입과정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문직 분야전체, 기관조직, 서비스 전달체계 전체 차원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하였다(김연희, 2007에서 재인용).

2) 결혼이민자 가족의 적응쟁점

여기서는 선행연구 및 현장보고에서 관찰되어온 적응 쟁점을 살펴본다. 결혼이민여성이 경험하는 도전은 크게 개인과 가족관계 차원, 지역사회차원 및 보다 거시적인 사회문화차원으로 수렴될 수 있다.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어 숙련정도와 문화적응의 정도는 모든 적응쟁점에서 공통적 요소이다.

(1) 개인과 가족 차원의 적응쟁점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학습과정은 개인과 가족, 집단으로 하여금 상당한 문화적응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를 경험하게 한다. 국외연구들은 문화적응의 과정이 통제력 상실, 무력감, 자신감의 상실과 같은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경험(Paukert, Petit, Perez and Walker, 2006), 역할갈등의 경험(Chrispin, 1998),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장벽과 성격유형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Padilla, Wagatsuma, and Lindholm, 1985), 그리고 익숙하지 못한 행동규범과의 조우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수준은 개인의 문화적응에 대한 태도, 문화적응의 단계, 그리고 새로운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같은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이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부정적 사건의 원인이 생애의 다른 영역에서도 부정적 사건을 가져올 것으로 믿기 쉬워 자칫 무능감과 무력감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

다. '민족적·문화적 단일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문화 역량이 취약한 한국 사회에 일방적 동화를 강요받는 결혼이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고하간의 차이는 있지만 삶의 다른 모든 측면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의 기저가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문화적응수준이 결혼 단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에 따라 부부의 권력관계가 달라진다. 특별한 기술력 없이 결혼을 통해서만 합법적 체류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법적 지위는 결혼초기의 권리상황을 매우 열악하게 만든다. 결혼생활 2년이 지나야 귀화할 수 있다거나 국적취득 이전에 이혼할 경우 한국체류가 어려워지는 현재의 법은 결혼이민여성에게 부부관계와 확대가족과의 관계에서 열등한 위치를 부여하여 극단적인 경우 배우자 학대와 같은 극한 상황에서도 속수무책이 되기도 한다.

한편, 결혼생활의 상호적 특성을 고려하면 한국인 남편 역시 정도의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외국출신 배우자의 문화에 적응하는데 따른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근무와 김진숙(2009)은 한국사회에서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해 사회적 배제와 소통의 부재를 경험한 남성들이 '결혼'이라는 정상성을 회복하기 위해 국제결혼을 선택하기 때문에 도구적 성격이 강하고 결혼생활이 지속되면서 동업자 관계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교환가치의 불일치로 인한 긴장과 갈등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여기에 시부모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시각과 외국출신 며느리에 대한 기대는 이를 증폭시킨다.

결혼이민자 가정의 이혼율이 높은 것도 서로의 권한과 역할, 의무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데다, 언어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가 이를 더욱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008년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와의 이혼율은 2007년 대비 39.5%가 증가하였다. 이들의 평균 동거기간은 2.7년으로 동거기간 4년 미만이 이혼가정의 90.2%를 차지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누적 혼인수가 많은 중국-베트남-필리핀인 아내의 이혼율이 높았다. 결혼이민부부는 한국인 부부의 경우에 비해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조정이나 개입 등이 더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적취득 전에 이혼한 이민여성의 처지는 불법체류자가 되기 쉬워 그 삶이 더욱 피폐하게 된다.

결혼단계가 진행되어 한국사회적응이 순조롭다고 해서 가족관계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결혼이민자 가정의 도전은 1세대인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부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양육과 교육 등 2세대의 삶과도 연결된다. 2007년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58,507명에 이르는데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 33,140명으로 58.0%이며 나머지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으로, 이들의 적응과 경쟁력확보가 과제이다. 결혼이민여성을 어머니로 둔 자녀들은 한국인으로 성장하지만 토착 한국인 부모를 둔 또래에 비해 한국어 능력의 상대적 지체와 외모 차이 등으로 또래로부터의 소외를 경험하게 되어 학교생활적응과 학업발달의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 교육이 사회적 계층 이동의 중요한 수단이며 자녀의 교육적 성취가 어머니의 능력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는 한국사회의 인식은 한국어 및 사교육 정보에 어두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정체감과 유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학업성취와 학교적응에서 겪는 어려움은 곧 자녀와의 갈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결혼이민자 가정의 세대 간 갈등에 가장 공통적인 원인 중 하나는 어머니와 자녀간의 문화적응 속도와 정도의 차이이다. 자녀들은 학교를 통해 한국어 및 한국문화와 익숙해질 기회가 많은데 비해 어

머니들은 언어구사가 불편하므로 집을 제외한 사회활동에서 배제되거나 같은 언어권에 있는 여성들과만 사귀에 되어 한국어와 관습을 배우기가 쉽지 않다. 일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한국문화에 자녀들이 열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녀를 과잉보호하고 본인의 모국어와 모국 문화를 자녀에게 전달하려 한다(장미혜·김혜영·정승화·김효정, 2008). 아동은 또래로부터 주류 문화에 동화하도록 압력을 받는 동시에 어머니로부터는 어머니의 민족적/문화적 규범과 전통을 이해하도록 압력을 받는 것이다. 이들은 가족 내에서도 두 개의 상이한 문화적 배경으로 인한 문화적 갈등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어머니에 대한 충성심과 어머니를 제외한 가족 및 외부환경에서 자신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교육현장에 최근 다문화주의에 대한 교육내용이 전달되는 등 변화가 일고는 있지만 다문화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교사나, 일반사회의 완고한 배타적 풍토에서 이들 아동이 겪는 혼란과 좌절은 사회복지실천가들이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도전이다. 결혼이민여성의 부부가 노년에 이르게 되었을 때 부부나 가족이 어떤 쟁점을 갖게 될 지는 미지수이다.

(2) 지역사회 차원의 적응 쟁점

지역사회는 가정의 정상적 기능수행과 안정에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경제적 적응의 장(場)이다. 비공식적 지원체계이며 대인관계망인 이웃, 공식적 지원체계로서의 사회복지와 보건 서비스, 교육기관의 소재지이며 취업현장이어서 지원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동시에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게 되는 가장 근접한 환경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결혼이민여성이 취업, 언어, 보건 및 교육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에서 마주치는 도전을 살펴본다.

결혼이민자 가정의 경제적 지위는 한국사회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다. 이민을 받아들이는 모든 국가들은 이주자들이 그 사회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대부분의 경우 처음에는 이주자들이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민을 받아들인 사회의 경제에 공헌한다고 결론짓는다(Potocky-Tripodi, 2002). 한국에서 최근 10여년간 관찰되는 이민은 대다수가 경제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의 한국남성과 자본이나 기술력이 없는 단신의 제3국 결혼이민여성의 결합이다. 즉, 현재와 같은 경제적 위기상황에서는 결혼이민자 가정이 부족한 복지자원을 공유해야 하는, 그리고 직업시장에서 낮은 임금으로 경쟁하는 상대로 비쳐지기 쉽다. 대부분의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사회에서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이선주 외, 2008)[3]와 많은 가정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수준에 속한다(문순영, 2007)는 보고는 이러한 우려를 부추긴다.

그런데 결혼이민자 가정의 경제적 안정은 빈곤이 교육, 문화, 의료, 사회참여 등 배제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사회에서의 적응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며 결혼이민여성

3) 취업기술교육이나 일자리 알선 등의 서비스는 매우 약한 편이다. 현재는 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혼이민자의 1% 정도만이 구직등록을 하고 있다.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결혼이민자의 등록은 1,606건이고 이중 취업은 447건으로 나타나 1/4 정도의 취업에 그치고 있으며 이중 293건(65.5%)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이어서, 대도시와 수도권을 제외한 농촌지역에서의 취업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의 종류도 제한되어 있어 영어와 중국어 사용자의 통·번역이나 언어 강사직을 제외하면 대개 식당보조 등 단순노무직으로 한정되어 있어 취업의 폭과 지속성이 열악하다.

의 취업여부는 시민권보장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설동훈・윤홍식, 2008). 결혼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결혼이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국적 취득 전은 물론이고 취득 후라도 이혼할 경우, 한국사회에서 이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윤홍식・김혜영・이은주, 2005) 취업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지역사회수준에서 개입이 필요한 또 다른 도전은 가족원의 건강과 관련된 것이다. 비교적 최근에 입국한 많은 외국 여성들은 가임기에 있어 자녀를 출산하는 비율이 높다. 자녀 출산은 산전관리와 출산 및 산후관리에서 의료적 서비스의 적절한 이용을 전제로 하게 되는데, 부족한 정보, 문화적으로 상이한 출산관련 관습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의료진 등은 의료서비스를 기피하게 하거나 정신적으로 부담을 주게 된다. 이 외에도 일부 가정에서 보고되고 있는 한국인 남편의 알콜 남용이나 가정폭력, 부적응과 소외 및 학대로 인한 결혼이민여성의 우울증, 자살시도 등은 기존의 대응체계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접근이 필요하여, 지역사회 공중보건(public health) 시각에서의 적절한 예방과 치료적 접근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3) 사회문화 차원의 적응 쟁점

결혼이민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토착사회의 차별과 편견 문제가 필연적으로 등장한다. 차별과 편견은 개인에 대한 비하와 무시의 미시적 차원에서부터 제도적인 차원에서 취업이나 교육, 사회자원에의 동등한 접근을 저해하는 정책과 관습이라는 거시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엄한진(2007)은 인종주의라는 체계적 편견은 타인종이나 민족의 문화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라기보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접촉을 통해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고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학교와 취업, 지역사회 등, 공적인 영역에서 이들의 토착한국사회와의 접촉기회는 늘어날 것이 자명하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내재화되고 제도화된 인종차별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는 다문화주의라는 새로운 기치를 무색하게 하고 사회적 통합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갈등요소가 될 수 있다. 차별은 권력과 편견이 조합된 것으로서, 취업과 거주 등 자원에 대한 접근을 한정하면서 차별받는 집단이 목소리를 낼 수 없도록 하게 만든다. 정치・경제적 사정이 어려울 때, 한국과 같이 이주의 경험이 적은 사회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보다 심각하고 정치적인 갈등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

편견과 차별로 인한 권리의 침해는 한국사회 다문화주의의 허구성과도 관련이 있다. UN 인권위원회에서는 한국정부가 '단일민족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순혈주의 담론을 표방하는 것 자체가 이미 다민족사회로 진입한 한국사회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UN Committee on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2007).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온정주의적 시각에서 제시되는 다문화주의는 이들을 타자화시키거나 시혜의 대상으로 볼 뿐, 한국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이나 다민족・다문화로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체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한경구, 2008).

국적이나 문화적 차이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가정 내 차별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문화교육과 가족치료 등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반면, 취업이나 교육현장에서의 차별은 보다 완고하고 교묘한데, 이러한 차별은 다문화사회를 가정해보지 못한 시절에 만들어진 정책이나 제도에 뿌리를 두고 있을 때도

있다. 즉,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접근이나 제도자체에 편견이 내재되어 있을 수 있어 세심한 검토가 요구된다.

벌써, 한국체류가 오래된 결혼이민가정에서는 자녀들의 주류사회 통합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설동훈 외(2006)의 결혼이주여성 인터뷰에서 일부 필리핀 여성들은 한국 교육의 경쟁력은 인정하지만 뿌리깊은 순혈주의와 이에 따른 사회적 차별이 자녀들에게서 경쟁력을 박탈할 것이라고 우려하여 자녀가 성장하면 다문화적 배경이 환영받지 못하는 한국보다 필리핀에서 취업하고 생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물론 이런 결정은 결혼이민여성의 본국 사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자신들이 떠나온 본국으로 자녀를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된다면 이들의 좌절감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또 한국사회로서도 출산력이나 안정적인 가족제도의 유지 등의 명분에서 시작된 결혼이민여성 지원의 예기치 못한 결과가 될 것이다.

4. 적응쟁점과 임파워먼트 기반 사회복지실천

여기서는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실천 모델로서의 임파워먼트 기반 사회복지실천의 적절성을 살펴보고 앞에서 제시한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 사회문화적 차원의 적응 쟁점에 대해 실천적 접근내용을 미시·중도·거시적 수준으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1) 임파워먼트 사회복지실천

임파워먼트 모델은 1970년대에 등장한 개념으로 복지정책, 사회프로그램, 직접적 개입 등에서 사회복지원조관계의 전통적인 치료자-클라이언트 모델을 대체하는 중요한 모델로 언급되고 있다. Gutierrez(1990)는 임파워먼트를 개인이 자신의 삶의 조건 향상을 위한 조처를 취할 수 있는 개인적, 대인관계적, 혹은 정치적 힘을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고, Cowger(1994)는 임파워먼트를 개인적 임파워먼트와 사회적 임파워먼트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개인적 임파워먼트는 자기결정과 유사한 것으로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는 것이고, 사회적 임파워먼트는 사회정의와 연관되어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또는 정치적 수준에서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적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정리해보면, 임파워먼트는 거시수준에서는 집단의 정치적 권력을 증가시키는 것이며 미시수준에서는 개인의 힘(power)이나 통제력의 증가를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임파워먼트는 개인적 수준, 대인관계 수준 및 제도적 수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써,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개인적 힘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회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게 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임파워먼트 개념은 사회복지실천의 기본 시각이나 목적, 그리고 접근법에서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사회복지실천 모델로 발전해 왔다. 임파워먼트 개념과 사회복지 시각의 접점은 관점, 실천의 목

적, 사회복지의 가치 등에서 발견된다. 개인이 자기 삶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지역사회에서의 민주적 참여를 실현하며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환경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임파워먼트 정의는 개인과 생태계 간의 기본적인 연계를 강조하고 있어, 사회복지실천의 '환경속의 개인'이라는 관점과 유사하다. 미국사회사업가협회는 사회복지실천의 중요한 목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 수행능력 향상을 들고 있는데 이는 대상 집단의 유능감 강화를 꾀하는 임파워먼트의 목적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또 임파워먼트 접근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능력을 일깨워 통제력을 얻는 과정에서 장애물을 제거하고 힘을 얻게 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회복지실천의 강점 관점(strength perspective)이나,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사회복지실천의 기본 가치와도 일치한다. 즉, 임파워먼트 접근은 개인에게 권력과,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제도내에서의 권력관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Gutierrez(1990)는 임파워먼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의 증가, 집단의식의 발달, 자기비난의 감소와 변화에 대한 개인의 책임감 인정이라는 4가지 심리적 변화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다. 먼저 자기효능감의 증가란 자기 삶의 사건들을 생산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자아기능의 강화, 클라이언트의 주도권 회복, 클라이언트의 활동능력 강화 등의 의미를 말한다고 하였다. 집단의식의 발달은 정치구조가 어떻게 개인과 집단의 경험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인식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이는 개인이 집단 구성원 및 지역사회 문제를 공유한다는 인식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기자신의 내부가 아니라 문제의 직접적 원인을 변화시키는데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기비난의 감소는 인식제고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자기 문제를 기존 사회의 지배적 권력 구조와의 관계에서 조망할 수 있게 되어, 클라이언트는 스스로를 부족하거나 결함이 있다고 보는 시각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변화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변화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에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된다.

2) 결혼이민자 가족 대상 임파워먼트 기반 사회복지실천 단계

클라이언트가 결혼이민자 가족일 때에도 접수→자료수집과 사정→계획과 계약→개입과 점검→평가와 종결의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의 보편적 과정을 적용할 수 있는데, 국제이주라는 특정한 상황이 가져오는 독특한 전제에 대한 심사숙고를 통해 차별화가 필요하다. 〈그림 1〉은 결혼이민자 가족의 독특성을 실천과정에서 고려하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천단계	임파워먼트 접근 내용	국제이주 상황에 대한 고려
접 수	-적격성 심사 -ct. 모국어로 작성된 신청서/통역서비스 -ct.의 문화적응유형(통합-동화-분리-주변화)과 적응정도 파악 -ct.와 사회복지사 matching	-사회복지사 자신의 문화적 배경, 가치의 실천활동에 대한 영향력 인식하고 편견의 소재,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 인식 -서비스 제공기관의 암묵적 편견, 차별요소에 대한 인지 -이중언어 지원체계 준비
↓		
자료수집과 사정	-전통적 자료수집(생태도, 가계도, 개인 및 가족사, 사회적지지 지도 등) -culturagram[4]을 통한 사정 -ct.가 규정하는 문제(이슈)의 수용 -규정된 문제의 유형(개인 및 가족관계/지역사회/사회문화) 확인 -사정결과에 따른 개입범주 결정 -ct.의 강점 확인	-사정 시 culturagram을 이용, 해결이 필요한 문제를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 -ct.의 종교, 가치, 문제원인 등에 대한 설명을 존중 -ct의 사회, 경제, 정치, 역사, 문화적 유산에 대한 지식 확보
↓		
계획과 계약	-과업의 우선순위 결정 -ct.의 변화에 대한 개인의 책임성 강조를 통한 참여 유도 - 계약관계 확립	-인종, 문화, 민족이 서비스 활용 행동이나 개입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 -ct. 상황에 대한 권력관계 분석(유형별 문제와 국제이주상황의 상호연관성 이해)
↓		
개입과 점검	-문제유형별로 미시/중도/거시적 수준에서의 접근을 위한 구체적 기술과 테크닉 가르치기 -자기효능감 증가 -자기비난 감소 -소집단 활동을 통한 집단의식발달 -리더십 함양 -자원동원 및 옹호활동	-민속치료요법, 문제해결의 토착적 관습 등 인식 -모국 공동체, 다문화가족 모임 등 ct.의 문화적응 지원 노력 -이주민 리더, 보조자 활용 -기관의 서비스, 제도와 법, 관습에 내재된 차별과 편견의 가시화 및 개선노력 -개입과정의 차별과 편견요소 제거 및 권리옹호활동
↓		
평가와 종결	-구체적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결정도에 대한 평가 -획득한 기술의 유지방안 -원조관계의 종결	-문제해결과 자기상황에 대한 ct.의 정치사회문화적 인식 변화 점검 -사회복지사 다문화역량 평가 -사후지도시 ct 및 가족의 다문화역량과 문화적응정도점검

〈그림 1〉 결혼이민자 가족 대상 임파워먼트 기반 실천단계별 접근 예

결혼이민자 가족과 일할 때, 클라이언트가 자기 현실을 어떻게 보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기본이 되는 원칙이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문화적응 과정에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본국과 다른 가족구조, 젠더구조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이후의 적응과 문제해결에 요구되는 기초를 닦는 것이다. 물론 이는 결혼이주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인 배우자와 가족들에게도 해당된다. 상이한 문화와 전통,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새 식구와 융합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변화와 수용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노력이 그것이다. 자기 문제에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클라이언트는 미래의 변화를 위한 해결책 마련에 노력하지 않고 무력한 객체로 남게 되기 때문에 결혼이민여성과 한국인 배우자 양쪽을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결혼이주여성은 다양한 배경과 동기에서 자발적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했고, 자신의 결혼에 의미를 부여하며, 적극적으로 한국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집단이기도 하다. 임파워먼트 시각으로 보면 이러한 특성은 개인의 임파워먼트에 요구되는 자아효능감 강화의 밑거름이 된다. 결혼이민여성의 자아효능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클라이언트의 생애경험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클라이언트에게도 현재의 고통이나 문제가 본인의 결함이나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 국제이주당사자로서의 특수한 상황이 기여하는 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자기비난을 줄이고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자세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여기에는 이들을 기존의 '희생자'나 '약자'로서가 아니라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한국사회로 이주하는 경계넘기를 시도한 도전의식과 주체적 결단 능력을 가진 능동적 존재로 인정하고, 이들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역시 사회복지사의 다문화역량이 요구되는 것이다.

집단화는 소외감을 줄이고 클라이언트를 대인관계로 이끌어 사회화를 경험하도록 한다. 임파워먼트는 개인적 수준 뿐 아니라 집단수준에서도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국내에는 이미 결혼이민여성의 출신국별로 자조집단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자녀를 둔 국제결혼가정들이 늘어나면서 국제결혼가정 자조모임도 형성되고 있다. 소집단을 통한 정서적 지원과 대인관계발달이 이루어지면 이는 곧 취업이나 자녀교육, 지역사회참여 등의 권리 확보에서도 개인이 아닌 집단적 힘을 사용하여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게 되어 임파워먼트의 거시적 차원의 목표달성에 연결된다. 집단의식 개발은 정치적 구조가 어떻게 개인과 집단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닫게 하는 인식의 발달을 가져와 개인과 집단,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공유된 운명이라는 자각을 가능하게 하고 자신들의 내재적 주관적 상황의 변화에 노력하기보다 에너지를 문제의 원인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Gutierrez, 1990).

종합해 볼 때, 다문화가정의 임파워먼트 사회복지실천은 개인의 자신감과 유능감 회복과 함께 사회에 참여하고 성취할 수 있는 기술을 교육하여 취업 및 지역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며, 현실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통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차별을 시정하며 통합을 지향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

4) culturagram 은 E. P. Congress(1994)가 가족의 문화적 다양성과 민족이슈를 고려한 실천을 위해서 가족사정 도구로 개발한 것으로 클라이언트의 이주의 이유, 정착기간, 법적 지위, 이주시 연령, 사용하는 주요 언어, 서비스기관접촉도, 트로마(trauma)나 위기경험, 그리고 가족· 교육·일에 관련된 가치를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부록 참조.

3) 적응쟁점별 임파워먼트 개입수준별 접근

(1) 개인과 가족관련 적응쟁점에 대한 수준별 접근

우선, 결혼이민여성 구성원의 개인 및 가족관련 적응 쟁점에 개입할 때, 문화적 차이로 인한 전후상황 검토를 전제로 하는 것은 이들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다. 결혼이민가정에서 성격차이로 명명된 부부갈등이나 모자갈등이 사실은 서로 다른 언어구사능력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이거나 갈등이 누적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혼이민여성 뿐 아니라 갈등의 상대방인 남편이나 자녀, 또는 확대가족에게도 꼭 필요한 것으로, 일단 문제가 문화차이에서 비롯되었는지 확인하면 외국인 배우자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감수성을 갖추도록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를 기본으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문화적응수준, 한국 내 거주기간,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의 상호적 문화적응노력 등을 고려하여 원조계획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가 이십대 초반의 한국거주기간이 짧은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여성이라면 아직도 정체성 확립의 중요한 단계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부부상담과 같은 미시적 접근 외에도 이 시기의 개인에게는 친구들로부터의 지지와 위안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료집단을 통한 지지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결혼이민여성이 자신의 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한국사회적응의 약점이 아니라 이중언어 구사의 능력을 가진, 그리고 본국의 문화를 한국의 가족과 지역사회에 전파하는 문화전달자로서의 능력을 갖춘, 또한 운명을 개척하는 적극적이고 도전정신을 갖춘 사람으로 인식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2) 지역사회관련 적응쟁점과 수준별 접근

지역사회 관련 적응 쟁점에 대한 임파워먼트 접근은 개인이 사회에 참여하여 주체적인 생활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데, 결혼이민여성 구성원의 심리적·경제적·사회적 능력강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미시적 수준에서는 예를 들면, 결혼이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대한 개입기술 개발과, 결혼이민여성들이 겪기 쉬운 불안이나 우울 등 정신보건차원의 개입이라든지 자녀의 보육, 교육과 관련된 개별화된 욕구에 따른 자원봉사자 연계나 가정방문서비스 등이 필요하다.

중도적 수준의 개입은 지역사회차원의 접근으로, 지역사회의 변화가 필수불가결한데, 결혼이민여성이 많은 지역사회에서는 욕구조사, 지역사회 정신보건교육,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자원간의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지역사회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들의 학제간 협력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과 자원발굴의 노력이 요구된다. 또,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언어적·기술적 능력에 맞춘 개별적인 개입노력과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다양한 관련 기관과 이웃 간 지역사회연계망 조성이 따라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한편으로는 이주여성과 가족이 지역사회에 참여하려는 동기와 책임감 및 기술을 교육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주자가 정착한 지역사회가 이들을 수용하고 도와 줄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준비시켜야 한다. 이미 안정적으로 정착한 결혼이민여성이나 결혼이민여성 구

성원들을 다문화인력으로 개발함으로써 이들에게 다문화주역이 될 수 있는 기회와 취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지역사회 노동시장에 이주여성이 가진 독특한 능력이 사용될 수 있는 직종을 개발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노동시장에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개방성을 높이는 일이 이주여성에게 새로운 기술을 교육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다문화가정지원을 위한 공공캠페인이나 결혼이민여성의 적응과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토착민 자원봉사자를 이용한 자매결연, 지역사회 내 이들의 정착과정을 돕는 다양한 통합 프로젝트 등은 이를 위한 기초작업이다.

거시적 수준의 접근은 지자체 차원에서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지역사회 정신건강이나 보건 서비스의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다문화인력을 훈련하는 것이다.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서비스에서는 외국인 아내의 국적별로 현지어가 가능한 인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관계되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다문화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과 훈련의 예산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3) 사회문화차원의 적응쟁점과 수준별 접근

사회문화 차원에서의 도전에 임한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임파워먼트는 결혼이민여성의 권리 옹호가 가장 큰 주제이다. 국제사회복지연합(International Federation of Social Work)이 선언했듯이 인권이라는 원칙은 그 개념 자체가 사회복지실천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며 클라이언트의 권리 옹호라는 오랜 사회복지의 전통적 가치와도 직결된다. Robson(1997)에 따르면 권리에 중심을 두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자기들의 안전에 대한 권리, 존엄성, 경제적 기회에 대한 권리를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해 주며 차별과 배제에 대한 인식을 높여 참여를 통한 권리확보의 필요성과 능력을 기르게 한다.

미시적 수준에서의 개입은 개인의 권리와 차별 금지 의식을 제고하는 것으로, 집단화가 효과적이다. 소집단활동은 사회복지사-클라이언트 관계를 넘어선 집단구성원간 관계와 집단활동이 주는 공감대 형성, 정서적 지원과 토론이나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문제해결접근법 등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주여성 모국공동체나 국제결혼한 한국인 남편들의 자조모임 등은 이런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된다. 결혼이민여성들에게 모국 공동체는 심리적 안정의 닻(anchor)으로 역할한다(이근무・김진숙, 2009). 모국공동체는 1세대 이주여성 뿐 아니라 2세대 자녀들에게도 어머니 모국의 문화를 접하고 자긍심을 갖게 하는 자원이 되며 다른 이주가정 자녀들과의 모임을 통해 정체성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국인 남편의 자조모임은 외국인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에 요구되는 특별한 노력, 배우자의 본국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확대가족과 외국인 배우자와의 관계 등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중도적 수준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기관의 숨어있는 제도적 차별이 있는지 인식하려는 사회복지사의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차별과 배제로 발단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인 갈등해결기구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거시적 수준에서는 차별금지정책의 옹호가 필요하고, 특히 결혼이민여성을 통합하고 지원하는 정부차원의 예산확보와 인력개발을 위한 사회복지계의 노력이 요구된다. 〈표 5〉는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5〉 결혼이민자 가족 임파워먼트 기반 사회복지실천의 수준별 접근

접근내용 쟁점 영역	수준별 접근 내용		
	거시적 접근	중도적 접근	미시적 접근
개인·가족관계 차원 - 가족역동(부부갈등, 폭력, 확대가족갈등, 세대간 갈등) - 삶의 주기 쟁점	· 서비스 접근성 향상 · 전달체계 개선(다문화역량 갖춘 전문인력 양성) · 다문화이해 교육 강화	· 사회복지현장의 서비스 효과성 향상을 위한 개발노력 · 여성단체, 지역사회단체와의 서비스 네트워킹	· 가족치료 · 부부상담 · 문화감수성 훈련 · 아동, 청소년 상담 · 아동청소년 정체성 훈련
지역사회 차원 -보건과 정신보건 -빈곤,취업·직업훈련 -자녀보육, 교육	· 지역사회보건 예산확보 · 지역사회 정신보건정책 및 프로그램 계획과 개발 · 지역사회 내 다문화 인력발굴과 훈련	· 결혼이민여성지원센터와 지역사회 자원 연대강화 · 지역사회 욕구조사 · 지역사회 정신건강 및 보건문제 예방교육협력 · 방과후 보육 가정방문서비스 · 보육기관의 다문화가정아동 지원프로그램 강화	· 사정척도 개발 · 문화적응스트레스 개입 · 약물남용(알콜) 예방 및 치료서비스 · 우울·불안 등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 · 교육, 보육 정보제공 및 자원봉사자 연계
사회문화 차원 - 언어교육 -시민권 관련(차별배제) -다문화주의 확산	· 차별 금지 정책 옹호(advocacy) · 다문화사회지향성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예:·다양한 수준의 한국어교육교재, 전문강사 개발을 위한 예산 확보노력	· 권리 침해 및 차별에 대한 구조적 갈등해결기구의 마련 · 지역사회서비스 기관의 제도적 차별 인식과 개선	· 권리교육 · 다문화주체로서의 인식과 역량개발 · 모국공동체, 국제결혼가정모임 등 집단화 및 자조집단활동 지원

5. 결론 및 제언

최근의 국제이주자 급증이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용과 성숙도를 시험하고 있는데, 결혼이민자 가족의 급속한 증가는 클라이언트 인구의 다변화로 사회복지실천현장을 긴장시키고 있다.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실천이 단순히 이들의 욕구충족에만 급급하다보면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존재가 불러와야하는 다문화사회로의 근본적 변화를 달성하기보다 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구하는 주변인으로 머무르게 하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연구자는 결혼이민자 가족과의 사회복지실천은 다문화주의 발달의 중요한 현장이며, 차별과 편견을 배제한 전적인 사회적 포함을 가져올 수 있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은 임파워먼트에 기초한 실천적 접근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다. 임파워먼트 개념은 인권이나 사회정의와 같은 기본적인 사회복지 가치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실천의 중요한 방법으로 평가되어 왔다(Skegg, 2005).

임파워먼트에 기반한 사회복지실천은 이들을 복지의존적인 주변적 집단으로부터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 발전의 주역으로 보는 시각의 변화에 기반한다. 결혼이민여성과 그 가족을 자기 삶을 개척하는 도전적 정신을 가진 주체적 인물로서 한국사회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문화적 관용성을 증가시켜 보다 선진적이고 개방적인 사회로 진전시키는 주체로 보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회복지사의 다문화역량이 전제된다. 사회복지사의 다문화역량은 개인의 삶과 자신의 실천활동에 미치는 문화의 영향을 인식하고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개방성을 넘어서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문화적 요소를 개입의 중요 포인트로 파악하여 클라이언트의 문화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결혼이민자 가족이 겪는 적응의 문제는 개인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인물들과의 관계, 지역사회의 제도 및 사회문화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이어서 문화적응이라는 맥락에서 이해가 필수적이며,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다문화역량은 개입의 성패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연구자는 결혼이민자 가족과의 사회복지실천 단계에서 다문화성에 기인한 실천의 쟁점을 제시하고 전문적 실천의 다문화역량 배양을 제안하는 한편, 이들 가족이 요구하는 개입의 쟁점을 개인과 가족 관련, 지역사회 관련, 사회문화관련으로 분류하고 각 쟁점별로 개입의 수준을 미시·중도·거시적 측면에서 탐색하여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활동의 통합적 접근을 제안하였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의 권리와 강점관점을 융합하면서 이들의 생태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시적・중도적・거시적 차원에서 각기 요구되는 개입전략을 세워 체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임파워먼트의 핵심이라고 본 것이다. Nash, Wong과 Trilin(2006)은 이주자의 정착을 위한 임파워먼트 접근은 거시적 수준에서는 인권과 사회정의 및 옹호활동으로, 중도적 수준에서는 집단활동을 통한 지역사회개발과 네트워킹으로, 그리고 미시적 수준에서는 적절한 기술적 개입으로 개인과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에서의 적응쟁점에 대한 지원활동에서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자신들을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한국사회의 제도적・구조적 차별을 인식하여 이를 변화시키려는 책임의식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차별을 인식하는 것이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얻으려는 결단으로 이끌게 되기 때문이다.

정리해보면 결혼이민자 가족이 보여주는 주요한 문제영역들, 즉 언어문제, 건강 및 정신보건, 교육과 훈련, 취업을 포함한 경제문제, 부부갈등과 폭력, 자녀세대와의 갈등과 학대 및 삶의 주기와 관련된 각 영역에서 미시적 차원, 중도적 차원, 그리고 거시적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미시적 차원에서는 사례관리, 보건교육과 상담, 가족치료, 부부치료, 아동과 청소년 상담 및 학업지원, 문화적응스트레스 관리 등에 대한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중도적 차원에서는 서비스 제공과 취업지원 면에서 지역사회의 각 분야 및 기관 간의 프로그램 협력이 필요하고 잠재적인 갈등해결을 위한 시스템 및 소집단 활성화가 요구되며 특히 병원, 학교, 사회복지서비스 등 공적 서비스기관의 통역서비스, 여성 관련 이슈 등이 다루어져야 한다.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지역사회의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과 예산확보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결혼이민자 가정의 폭력, 학대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예방서비스를 개발하고 전문서비스 전달체계와 인력개발, 차별해소를 위한 권리주장과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임파워먼트를 위한 사회복지실천활동의 통합적 시각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고,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결혼이민자 가정은 결혼을 통한 이민이라는 점에서 결혼초기, 결혼의 안정화, 자녀출생과 보육, 교육, 그리고 노년기 부부 재적응까지 가족주기별로 장기적 관점에서 서비스가 계획되고 개발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다수의 결혼이민자 가정이 초기단계에 있어 자녀출산과 보육 및 초등학교와 중학교 재학 정도의 자녀를 두고 있는 가족발달단계에 있지만 시간이 가면서 국제결혼 커플의 중년기·노년기, 그리고 이들 가족 자녀들의 성년기 적응과 관련된 쟁점들이 새로 등장할 것이다. 결혼이 성공적으로 지속된 경우에도 노년기 적응, 한국인 남편이 사망한 후 외국출신 아내가 노년기에 겪게 될지도 모르는 도전과, 혼혈자녀들의 성년기 취업과 결혼에 관련된 도전에 대해서도 준비가 필요하다.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가족주기를 관통하는 장기적 관점의 사례관리 및 연구지원이 요구된다. 다른 한 가지는 사회복지현장의 다양화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문화역량 개발이다. 일선 사회복지사들의 경험과 서비스 수급자들의 요구 및 다문화주의 가치를 아우른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대학교육과정과 보수교육, 직무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려는 사회복지계의 노력이 절실하다.

참고문헌

권복순·차보현. 2006. “농촌지역 코시안 가정의 주부의 의사소통능력 문화적 정체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8(3): 109-134.

김연희. 2007. “한국사회의 다문화화와 사회복지분야의 문화적 역량”. 『사회복지연구』 35: 117-144.

김이선·김민정·한건수. 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김이선·장혜경·김혜영·양명희·최은영. 2007.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서비스 효율화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김인숙·우국희. 2002. “사회복지사가 인식하는 임파워먼트의 의미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9(5): 34-61.

김현미·김영옥·김민정. 2005. 『생활세계의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사례연구 및 적용방안』. 한국여성학회.

김희주, 은선경. 2007.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을 위한 대처전략에 관한 사례연구 -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5: 33-66.

문순영. 2007. “현행법(안)을 통해 본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여성연구』 72(1): 109-142.

박경동. 2007. “결혼이민여성 형성과 갈등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 대회 논문집』: 1132-1152.

설동훈·윤홍식. 2008. “국내거주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학회자료집』: 247-265.

설동훈·한건수.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설동훈·이혜경·조성남. 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엄한진. 2005. “프랑스 사회통합의 위기와 이민문제의 정치화”. 한국사회학회 2005년 후기 사회학대회 발표논문.

양옥경 · 김연수. 2007. “서울 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6: 79-101.

오은순 · 김민정 · 홍선주. 2004. 『다문화교육을 위한 범교과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연구원.

윤정숙 · 임유경. 2004. “성별화된 이주 방식으로서의 국제결혼과 여성에 대한 폭력:필리핀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윤형숙. 2004.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2004년도 한국여성학회 심포지움 발표논문집』.

윤홍식 · 김혜영 · 이은주. 2005. “절대 및 차상위 빈곤선을 통해 본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지위 결정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1(3): 269-288.

이근무 · 김진숙. 2009. “국제결혼한 남성들의 생애사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1): 135-162.

이선주 · 양혜경 · 장미혜 · 최현미 · 송성실 · 송유나. 2008.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I):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서비스 현황과 정책방안』. 여성정책연구원.

장미혜 · 김혜영 · 정승화 · 김효정. 2008.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I)』. 여성정책연구원.

정은희. 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발달과 언어환경”. 『언어치료연구』 13(3): 33-52.

최혜지. 2009.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과 관련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1): 163-193.

한건수. 2006. “농촌지역 결혼 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한경구. 2008.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 전화: 문제점과 전략”. 『이슈브리프』.여성정책연구원. pp. 40-47.

Berry, J. W. 2003. “Conceptual approaches to acculturation.” In K. M. Chun, P. B. Organista, and G. Marin (Eds.), *Acculturation: Advance in theory, measurement, and applied research* (pp 17-37).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Birman, D. 1994. “Acculturation and human diversity in a multicultural society.” In E. J. Trickett, R. J. Watts, and D. Birman (eds). *Human Diversity: Perspectives on People in Contexts* (pp 261-284). San Francisco: Jossey-Bass.

Chrispin, M. C. 1998. “Resilient adaptation of church-affiliated young Haitian immigrants: A search for protective resourc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Congress, E. P. 1994. “The use of culturagram to assess and empower culturally diverse families.” *Families in Society: The Journal of Contemporary Human Services* 46: 531-540.

Cowger, C. D. 1994. “Assessing client strengths: Clinical assessment for client empowerment.” *Social Work* 39(3): 262-268.

Evans, E. N. 1992. “Liberation theology, empowerment theory and social work practice with the oppressed.” *International Social Work* 35: 135-47.

Gutierrez, L. 1990. “Working with women of color: An empowerment perspective.” *Social Work.* 35(2): 149-53.

Ife, J. 2001. *Human Rights and Social Work: Towards Right Based Prac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_____, J. 2000. “Localized need in a globalized economy:Bringing the gap with social work practice”. *Canadian Social Work.* 2(1):50-64.

LaFromboise, T., H. Coleman, and J. Gerton. 1993. "Psychological impact of biculturalism: Evidence and theory." *Psychological Bulletin* 14: 395-412.

McPhather, A. 1997. "Cultural competence in child welfare: what is is it? How do we achieve it? What happens without it?." *Child Welfare* 76(1): 255-278.

Nash, M., J. Wong, and A. Trilin. 2006. "Civic and social integration: A new field of social work practice with immigrants, refugees and asylum seekers." *International Social Work* 49(3): 345-363.

Padilla, A. M., Y. Wagatsuma, and K. Lindholm. 1985. "Acculturation and personality as predictors of stress in Japanese and Japanese-American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5: 295-305.

Paukert, A. L., J. W. Pettit, M. Perez, and R. L. Walker. 2006. "Affective and attributional features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ethnic minority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Psychology* 140(5): 405-419.

Potocky-Tripdi, M. 2002. *Best Practice for Social Work with Refugee and Immigrants*.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Robson, M. 1997. *Realizing human rights: The Romans lecture for 1997*. Oxford: London Press.

Skegg, A.M. 2005. "Human Rights and Social Work : A western imposition or empowerment to the people?" *International Social Work* 48(5): 667-672.

Xu, Q. 2007. "Globalization, immigration and the welfare state: A cross-national comparison."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afare*. XXXIV (2): 87-106.

보건복지가족부. 2009. www.mw.go.kr/front/jc/sjc0111mn.jsp

통계청. 2008. 국제결혼통계 (http://www.index.go.kr/egams/default.jsp)

Social Work with Marriage Based Immigrant Families: an Application of Empowerment Approach*

Yoon, Hye-mee
(Professor, Detp.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quickening pace of international migration in the last twenty years brought fundamental demographic and social changes to the Korean society. Increasing number of marriage-based immigrant families imposes new challenges on social work community; however, the social work community has not been equipped with necessary practice models, sets of skills and professionals with cultural competency. This study aims to explore an integrative framework of social work practice with this client 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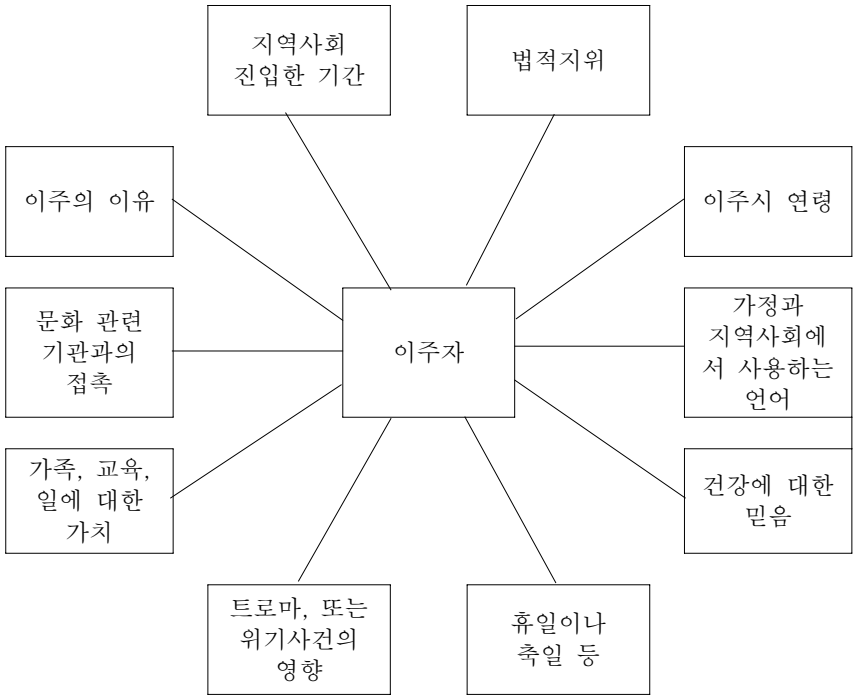
Research foci include the profile of marriage-based immigrant families in Korea, available social services at the time, challenges and issues they face, the compatibility of the empowerment based social work practice, and micro/mezzo/macro level concerns that arise for the effective service provision. Challenges among marriage-based immigrant families are converged into personal/familial, community related, and larger social-cultural issues. Empowerment is a multi-dimensional social process to help people gain control over their lives; a process that fosters power in people, for use in their lives, their communities and in their society. Empowerment based social work practice can be the most competent framework for working with multi-cultural families considering their multi-faceted acculturation issues while they navigate thru Korean society. Issues of educating and training of culturally competent social workers are discussed.

Key words: marriage-based immigrant family, empowerment, social work practice, multi-culturalism, cultural competency

〔논문 접수일: 09. 07. 01, 심사일: 09. 07. 20, 게재 확정일: 09. 08. 24〕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MOEHRD, Basic Research Promotion Fund) (KRF-2008-013-B00060).

부록: Culturagram



(Congress, 1999)